

러시아 6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수출현안) 껍질을 까지 않은 캐슈넛 관세율 변경

- 출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98 (2018.06.13), Custom Forum (<https://customsforum.ru/>)
- 껍질을 까지 않은 캐슈넛의 관세율이 5%에서 0%로 변경됨
 - 2018년 9월 2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껍질을 까지 않은 캐슈넛(유라시아 경제 연합 통합 상품 코드 0801 31 000 0)의 관세율을 0%로 변경하는 결정이 통과됨
 - 현재 껍질이 있는 캐슈넛의 관세율은 관세가격의 5%이며, 주로 기니, 기니비사우, 중국, 이란, 나이지리아,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음
- 관세율 인하로 껍질을 까지 않은 캐슈넛의 공급이 증가하여 전체 캐슈넛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 껍질이 제거된 캐슈넛에만 0%의 관세율이 적용됨
 - 2017년 껍질이 있는 캐슈넛의 총 수입량은 2016년에 비해 8배정도 감소하여 541만 5천 미국 달러, 521.9톤에 머물렀음.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 총 수입량 중 55.2%가 벨라루스로 유입되었고, 러시아로 수입된 양은 전체의 10.5%로 약 54만 미국 달러 정도 수입됨
 -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캐슈넛 생산국은 캐슈넛 껍질 제거 설비에 투자하여 가공한 캐슈넛을 수출하고 있음
- 캐슈넛 껍질이 여러 효용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역내 캐슈넛 가공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경제연합 내 껍질이 있는 캐슈넛 관세인하는 러시아의 주도로 이뤄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 기업 'Kor Industry'는 견과류 주요 가공업체 중 하나로 약 2900만 루블(약 5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캐슈넛 가공공장을 설립
 - 캐슈넛의 껍질 함유된 카르다놀은 100% 수입되고 있는 원료로 유약, 도료, 플라스틱 제조에 이용되거나 연료 펠릿으로 압축되어 사용될 수 있음
- 러시아 견과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으로 다양한 수요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러시아 견과류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견과류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견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러시아 내 캐슈넛 가공기술 확보와 공급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견과류 시장을 확대시킬 것임
 - 국내에는 간편한 포장 방식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온 제품이 많으므로 이러한 러시아 시장 확대와 변화에 맞는 제품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결정은 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됨. 단, 9월 2일부터 발효 가능함

2. (기술규정) WTO 양허세율 내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특정 상품 관세율 변경

- 출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94 (2018.06.05),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조례 N107 (2018.06.05)
- 러시아가 2011년 12월 16일 154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공식 가입한 직후 점진적인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을 약속해 옴
 - 조속한 관세인하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 후 1-7년간의 이행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 약속함
 - WTO의 양허세율과 러시아에 의무이행 사항 기준에 맞춰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공동 관세율을 설정 및 변경해 옴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N94에 따른 역내 공동 관세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통합 상품 코드	제품	관세율 (%)
0306 19 900 1	- - - - 남극 크릴새우 (Euphausiasuperba)	3 *
0307 43 190 0	- - - - 갑오징어 기타, 냉동	7 *
0307 43 380 0	- - - - LOLIGO 오징어 기타, 냉동	8 *
0307 43 900 0	- - - - 오징어 기타, 냉	7 *
0307 52 900 0	- - - 문어 (OCTOPUS SPP.), 냉동, 기타	8 *
0806 20 300 0	- - 말린포도, 술타나	5 **
1602 10 009 0	- - 고기, 그 부산물 또는 피로 만든 기타 균질 가공품	17, kg당 0.43유로 이상
1605 40 000 1	- - 초기 가공 중량 2kg이상의 조리된 크릴 새우	5, kg당 0.1유로 이상*
1605 53 900 0	- - - 가공된 홍합 혹은 통조림 홍합 기	8*
1803 10 000 0	- 지방을 제거한 코코아페이스트	3*
1804 00 000 0	코코아 오일, 코코아 지방	5*
2001 90 100 0	- - 망고 처트니	10, kg당 0.05유로 이상

* 2018.09.01.부터 2019.12.31.까지 수입관세율 0%

** 2018.09.01.부터 2019.05.31.까지 수입관세율 0%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조례 N107에 따른 역내 공동 관세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통합 상품 코드	제품	관세율 (%)
0303 89 900 7	- - - - - 기타 생선, 냉동	6 *
0304 95 100 0	- - - 생선연육	5 *
2007 99 500 3	- - - - - - 살구 퓨레	10 ***
2007 99 500 4	- - - - - - 서양배 퓨레	10 ***
2007 99 500 5	- - - - - - 복숭아 퓨레	10 ***
2007 99 500 7	- - - - - - 기타 잼, 젤리, 과일 퓨레	10 ***

* 2018.09.01.부터 2019.12.31.까지 수입관세율 0%

*** 2018.09.01.부터 2018.12.31.까지 수입관세율 0%

- 러시아가 일부 품목에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0%로 부과하는 것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수요가 많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강화 노력이 필요함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함. 단, 2018년 9월 1일부터 발효가 가능함

3. (수출현안)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서울에서 개최

- 출처: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기사 (<http://www.fsvps.ru/fsvps/news/>) 2018.06.04.-07, 산업통상자원부

- 6월 7일 서울에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 한국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13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함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등
 - 러시아 측은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 부처와 기타 기관 및 기업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함
 - *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 6월 22일에 개최된 한러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사전 조율의 성격을 가지며 양국 경제협력 기반강화, 혁신성장,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재개 등의 방안을 논의함
- 이에 앞서 6월 5일과 6월 1일에는 한러 무역경제협력 정부위원회 회의와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과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의 업무의회가 사전 진행됨
 - 1일에는 대사관 서기관과 동식물검역국 대표단이 만나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

회에 논의될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 특히 축산물과 작물생산에 있어서 상호이익을 위한 무역 방안에 중점을 둠

- 또한 5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와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 대표 간 회의를 위해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장이 만나 사전 논의를 진행함
 - 러시아 측은 육가공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축산물을 수출을 위한 위해성 평가를 비롯하여 가금류 생산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을 요구함
 - 러시아는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검사를 사전에 진행하고 7일 회의에서 그 예비 결과를 받기로 함.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및 농업 관련 상호협력에 동의함
 - 또한 한국 라이신(lysine)생산 기업의 대한 러 동식물검역국의 검사도 진행하기로 합의함
- 농산, 축산, 수산, 식품류 무역에 대한 양자 협력은 양국 기업의 수출입의 복잡한 절차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수출허가 기업 등록의 과정과 동식물 검역 요건에 대한 양국 협력이 기대됨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출입 문제 외에도 극동지역 투자와 협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 수산물 복합단지 조성이나 농업개발 협력과 같이 한국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국의 협력 사항에 유의하여 변화에 따라 유연한 수출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4. (수출현안) 자율적 식품 ‘신호등 표시제’ 시행

- 출처: 러시아 소보원 (<http://rospotrebnadzor.ru>), 베스티이코노미카 (<https://www.vestifinance.ru>)
- 식품 속 특정 성분을 함량에 따라 신호등의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자율적 ‘신호등 표시제’가 실시됨
- 국제 어린이날인 6월 1일부터 자발적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함
 - 영국이나 핀란드 등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며 이 제도를 시행해옴. 한국에서도 2011년부터 햄버거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권고 사항으로 시행함
 - 러시아에서는 2-3년 전부터 식품 성분을 함량 별로 나누어 신호등의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시행이 대두되어옴
 - 이 제도에 따라 아이스크림에 지방, 소금, 설탕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함. ‘유니레버 루스’는 자사 제품(Magnat, Zolotoy Standart, Ekzo)의 포장지에 포화

지방산, 나트륨, 설탕의 함량을 제품 100g당 기준으로 표기하고 색상으로 표시함

- 러시아에서 가장 큰 소매유통업체 중 하나인 X5 Retail Group은 그룹차원에서 신호등 프로젝트에 참여함
 - 유제품 및 가공류 제조업체들은 6월 중에 이 제도 시행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미 자연적으로나 제품의 특징상 특정화학성분을 포함하는 치즈, 과자, 생수, 식품원료, 정제설탕, 야채, 버터, 청량음료, 초콜릿, 캐러멜, 핫바, 젤리 등에는 표시되지 않음
- 이 신호등 표기는 나트륨, 설탕, 지방산의 함량을 일일권장소비량을 기준으로 %로 표시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줌
- 표기 형식은 다음과 같음



사진 출처: <http://news.21.by>

- 영양성분 표시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과 적당히 소비해야 할 제품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줌

- 색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초록색 /100g당	노란색 /100g당	빨간색
지방	3g 미만	3-17.5g	17.5g/100g 초과 혹은 21g /1인분
포화지방	1.5g 미만	1.5-5g	5g/100g 초과 혹은 6g /1인분
설탕	5g 미만	5-22.5g	22.5g/100g 초과 혹은 27g /1인분
나트륨	0.3g 미만	0.3-1.5g	1.5g/100g 초과 혹은 1.8g /1인분

-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을 위한 식료품 선택에도 영향을 끼칠 것

으로 보임

- 러시아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 약 63%가 부적절한 음식 섭취와 관련된 질병이고, 러시아 여성의 비만도는 남성보다 2-2.5배 높음
 - 기존에 식품성분함량에 대한 정보를 작은 표나 나열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러시아에는 칼로리와 더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지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산의 정량적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소화기계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움
-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이 제도의 참여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완할 점도 많음
- 신호등 표시제 담당자는 이 제도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절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함
 - 러시아 소비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임. 그러나 철저한 모니터링 방법과 위반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
 - 소비자가 신호등 표시가 제품이 좋은 식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적게 먹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함
- 신호등 표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러시아의 기준은 한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신호등 표시제의 기준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임
 - 지방: 3-9g, 포화지방: 1.5-4g, 당류: 3-17g, 나트륨: 0.12-0.3g (1회 제공량 기준)
 - 러시아 주요 식품기업과 유통전문기업에서 앞장서서 참여한다면, 참여하지 않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 현재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어린이 식품의 경우 러시아 소비원에서 권고한 신호등 표시제 기준에 대비한다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I**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없음

III**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첨부파일 참조